

## 간호대학생의 인성, 관계성 및 교내활동 참여의 관계

이재겸, 김종경\*  
김천대학교 간호학과

###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aracter, Relatedness and Participation in School Activities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ae Kyeum Lee, Jung Kyung Kim\*  
Department of Nursing, Gimcheo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인성, 관계성 및 교내활동 참여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대상은 G도와 K도에 위치한 4년제 2개 대학 간호학과 학생들로 하였고, 자료 수집은 2021년 04월 22일부터 05월 02일까지 실시되었다. 자료 분석은 SPSS/WIN 22.0 program을 이용하였으며,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Pearson's correlation, Independent sample t-test, One-way ANOVA, 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 결과 간호대학생의 인성은 평균 3.95점(5점 만점), 관계성은 평균 4.46점(5점 만점), 교내활동 참여는 평균 3.65점(5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의 인성과 관계성, 교내활동 참여는 모두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회귀분석 결과에서 간호대학생의 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관계성, 교내활동 참여, 학년으로 나타났으며 63.6%의 설명력을 보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보면 간호대학생을 인성을 겸비한 의료인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관계성을 함양시키고 교내활동에 참여를 유도하도록 교수 및 학우와 상호작용을 위한 대학 차원의 적극적인 활동 프로그램이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descriptive research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nursing college students' character, relatedness, and participation in school activities. Its survey respondents were nursing students attending two universities in G and K cities, and the said survey was conducted from April 22 to May 2, 2021. The SPSS/WIN 22.0 software was used to analyze the survey data. In particular, this analysis included frequency and percentag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Pearson's correlation, independent sample t-test, one-way ANOVA, and multiple regression studies. Consequently, this analysis showed that the nursing college students' average character, relatedness, and participation in school activities scored 3.95, 4.46, and 3.65 points, respectively, out of 5 points. In addition, the nursing college students' character, relatedness, and participation in school activities showed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among them. Likewise,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dentified that the factors influencing the nursing college students' character were their relatedness, participation in school activities, and grad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 activity program at the nursing college to improve relationships between its students and induce their participation in school activities, resulting in these students' improved character.

**Keywords** : Character, Interpersonal Relations, Nursing, School Activities, Universities

본 논문은 2021년 김천대학교 연구과제로 수행되었음(gc-21044).

\*Corresponding Author : Jung-Kyung Kim(Gimcheon Univ.)

email: jj2c@nate.com

Received February 15, 2022

Revised March 11, 2022

Accepted May 6, 2022

Published May 31, 2022

## 1. 서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변화하는 사회적 구조에 적응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인성함양 중심의 교육 패러다임이 대두되고 있다[1]. 최근 각 대학에서는 인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실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부족할 뿐더러 대학생들의 인성 강화를 위한 기회가 적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 특히 졸업 후 대부분 임상간호사로 근무하게 되는 간호대학생의 경우에는 높은 지식과 도덕적 소양뿐만 아니라 인성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생각되고 있다. 간호사의 인성은 임상 현장에서 환자의 생명을 다루고 윤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되어[3] 간호대학생 시절부터 갖춰 나가야 할 중요한 핵심 역량이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도 3주기 간호인증평가에 인성 교육을 더욱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있다[4].

최근 간호사 사이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관련된 보도 자료[5] 등으로 인성에 대한 교육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은 간호사 사이의 관계 및 간호서비스의 질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어[6] 학부 때부터 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인성은 자기존중, 자기조절, 성실, 배려, 책임, 소통 등의 덕목으로 구성된다고 하였으며[7], 이러한 덕목은 여러 활동을 통해 타인과 관계를 형성하면서 경험하게 된다.

관계성이란 자신과 타인을 심리적·정서적으로 연결시켜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이 소속된 사회와 밀접하게 연관된 사람과 상호간에 관심을 갖고 배려하면서 관계성이 높아진다[8]. 대학생 시기에 관계성 형성이 적절하지 못한다면 학업 불성실, 공허함 등으로 이어지며 자기중심적인 성향, 사회적 억제 등의 대인관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9] 관계성 향상 및 관리가 중요한 요인으로 다뤄지고 있다. 직무 특성상 임상 현장에서 많은 보건의료팀 및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대상자들 도와야 하는 간호사들은 다학제간 팀뿐만 아니라 대상자 및 보호자 등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기 위해 관계성은 필수적인 역량 중 하나이다[10]. 그러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대학가에서는 감염 위험을 낮추기 비대면 형태의 수업이 주를 이루었고, 접촉의 최소화를 위해 오리엔테이션, 기숙사 입주, 동아리 행사 등 관계성 형성을 위한 활동의 비중이 적어져[11] 학생 간의 상호작용 어려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12]. 관계성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감

정과 욕구를 조절하여 타인과의 관계에서 신뢰성이 높은 사람으로 인식되도록 하고, 사회생활에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한다[13].

교내활동은 간호대학생이 자신이 주체가 되어 주도적으로 대학교 내에서 구성원들과 상호작용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14]. 교내활동의 유형에는 동아리 활동, 어학연수, 공모전, 봉사활동, 교수와의 상호작용, 교우와의 상호작용 등 다양한 활동들이 포함되며 이러한 활동은 대학의 교육성과 및 핵심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다[15]. 대학생의 핵심역량으로 대인관계, 의사소통, 팀워크, 배려, 윤리 및 공동체 의식, 배려역량 등은 교육부 및 인성교육진흥법에서 제시한 인성역량에 포함되는 개념[14]으로 간호대학생의 인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간호대학생의 관계성과 교내활동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이 사회에 진출하여 전문직 간호사로 업무에 종사기 이전인 간호대학생 때부터 인성 관리를 통해 인성 역량을 함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인성, 관계성 및 교내활동 참여도의 관계를 알아보고, 인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의 인성 함양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2. 본론

### 2.1 연구 방법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인성, 관계성 및 교내활동참여와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인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2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2021년 04월 22일에서 2021년 05월 02일까지 G도와 K도에 위치한 2개 4년제 대학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 모집에는 연구자가 직접 연구목적과 내용에 대해 설명하였고,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를 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서면동의를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자들에게 연구 도중 언제라도 연구 참여를 중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없음을 설명하였다.

연구의 표본 크기는 G-Power3.1.9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정하였다. 다중회귀분석에서 유의수준 .05, 중간

정도의 효과크기 .15, 검정력 .95, 예측변수가2개 수준으로 고려하여 107명이 산출되었다. 연구 대상자들의 탈락률을 고려하여 135명을 편의 추출하였고, 135부를 회수하였으나 불성실한 9부를 제외한 126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 2.3 연구도구

### 2.3.1 인성

인성은 Park & Hur[16]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5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5점 Likert scale 최저 1점에서 최고 5점으로 되어있다. 점수의 범위는 최저 53점 최고 26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인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 신뢰도 Cronbach's  $\alpha=.93$ 이었고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94$  이었다.

### 2.3.2 관계성

관계성은 Deci와 Ryan[17]의 개인의 자기결정성을 측정하는 기본심리욕구척도(Basic Psychological Need Scale : BPNS)를 Lee[18]가 번안하고 타당화한 것을 간호대학생에게 적합하게 수정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5점 Likert scale 최저 1점에서 최고 5점으로 되어있다. 점수의 범위는 최저 5점 최고 2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관계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Lee[18]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83$ 이었고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88$  이었다

### 2.3.3 교내활동 참여

교내활동 참여는 한국교육개발원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하고, Nam[15]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5 Likert scale 최저 1점에서 최고 5점으로 되어있다. 점수의 범위는 최저 11점 최고 5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교내활동 참여가 높음을 의미한다. Nam[15]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83$ 이었고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87$  이었다

## 2.4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22.0 program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 2) 대상자의 인성, 관계성 및 교내활동 참여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 3) 대상자의 인성, 관계성 및 교내활동 참여 차이는 Independent sample t-test와 One-way ANOVA를 이용하였으며, 사후검정은 Duncan test로 분석하였다.
- 4) 대상자의 인성, 관계성 및 교내활동 참여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다.
- 5) 대상자의 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 2.5 대상자의 윤리적 고려

연구대상자의 윤리적인 측면을 보호하기 위해서 연구대상자들에게 자발적으로 참여 동의를 받고, 설문지 작성 도중 언제든지 참여를 중단하거나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설문지 작성 중 얻게 되는 정보는 연구 목적 이외에는 어떠한 곳에도 사용하지 않음을 설명하였고, 무기명 처리하여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3년간 보관 후 폐기됨을 설명하였다. 참여 대상자에게는 설문 참여 후 소정의 답례품을 지급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성, 관계성 및 교내활동 차이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성은 학년, 학과 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 검정 결과 학년은 1,2학년이 3,4학년에 비해 인성 점수가 높았고 ( $F=3.487, p=.018$ ). 학과 만족도는 나쁨과 보통에 비해 좋음에 높았고 좋음에 보다 매우 좋음에 높았다( $F=8.491, p<.000$ ). 관계성은 성별, 학업 성적, 학과 만족도, 지원 동기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 검정 결과 학과 만족도는 나쁨과 보통에 비해 좋음에 높았고 좋음에 보다 매우 좋음에 높았고( $F=5.448, p<.002$ ), 지원 동기는 취업률과 타인의 권유보다 적성을 고려하거나 기타가 높았다( $F=3.212, p=.025$ ). 교내활동 참여는 학업 성적과 학과 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 검정 결과 학업 성적은 3.0이상인 학생이 3.0미만의 학생보다 높았고( $F=6.833, p=.002$ ), 학과 만족도는 나쁨, 보통, 좋음에 비해 매우 좋음에 높았다( $F=4.804, p=.003$ )(Table 1).

Table 1. Differences between character, relatedness and participation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n=126)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Character		Relatedness		Participation	
			Mean±SD	t or F(p)	Mean±SD	t or F(p)	Mean±SD	t or F(p)
Gender	Male	26(20.6)	212.69±2.81	.796	21.35±2.81	-2.041	41.27±8.16	.901
	Female	100(79.4)	208.70±2.70	(.427)	22.57±2.70	(.043)	39.88±6.67	(.369)
Grade	1-year <sup>a</sup>	16(12.7)	219.94±23.62		23.31±2.57		40.50±6.05	
	2-year <sup>b</sup>	31(24.6)	215.48±23.28	3.487	22.81±2.49	1.894	41.16±7.97	1.251
	3-year <sup>c</sup>	28(22.2)	209.07±24.66	a,b>c,d	22.32±2.95	(.134)	41.46±6.55	(.294)
	4-year <sup>d</sup>	51(40.5)	202.90±19.05		21.71±2.78		38.75±6.25	
Religion	Christian	26(20.6)	215.15±22.81		23.15±2.96		40.85±7.93	
	Catholic	13(10.3)	212.00±19.92	1.048	22.08±3.27	1.025	38.85±7.11	.239
	Buddhism	5(4.0)	215.60±35.05	(.374)	22.40±2.79	(.384)	40.60±8.96	(.869)
	Other	82(65.1)	206.99±22.22		22.09±2.60		40.13±6.65	
Academic performance (score)	4.0≤ <sup>a</sup>	24(19.0)	218.33±27.86		23.58±2.56		43.88±7.63	6.833
	3.0~3.9 <sup>b</sup>	92(73.0)	207.27±21.26	2.313	21.97±2.70	3.416	39.76±6.48	(.002)
	2.0~2.9 <sup>c</sup>	10(8.0)	209.20±18.18	(.033)	22.50±3.02	(.036)	35.00±6.20	a,b>c
Major Satisfaction	Bad <sup>a</sup>	5(4.0)	190.80±39.17		20.60±4.56		38.40±14.29	
	Nor bad <sup>b</sup>	42(33.3)	201.93±16.92	8.491	21.52±2.87	5.448	37.71±5.99	4.804
	Good <sup>c</sup>	59(46.8)	210.24±21.23	a,b<c<d	22.39±2.51	a,b<c<d	40.61±6.47	a,b,c<d
	Very Good <sup>d</sup>	20(15.9)	228.97±4.91		24.20±1.60		44.45±6.30	
Motive	Employment <sup>a</sup>	40(31.7)	207.50±20.07		21.43±3.02		40.08±6.81	
	Recommendation <sup>b</sup>	23(18.3)	200.13±24.24	2.458	21.91±2.99	3.212	38.04±7.47	1.893
	Aptitude <sup>c</sup>	57(45.2)	213.93±22.80	(.066)	23.09±2.26	(.250)	41.46±7.00	(.134)
	Other <sup>d</sup>	6(4.8)	217.33±23.89		22.50±2.81		36.67±3.50	

### 3.2 대상자의 인성, 관계성 및 교내활동 정도

간호대학생의 인성은 5점 만점에 평균 3.95점이었고, 관계성은 5점 만점에 평균 4.46점 이었으며, 교내활동 참여는 5점 만점에 평균 3.65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Nursing students' character, relatedness and participation

	Mean±SD	Range
Character	3.95±0.92	1~5
Relatedness	4.46±0.67	1~5
Participation	3.65±1.18	1~5

### 3.3 대상자의 인성, 관계성 및 교내활동의 관계

간호대학생의 인성은 관계성( $r=.552, p<.000$ ), 교내활동 참여( $r=.593, p<.000$ )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계성은 교내활동 참여( $r=.288, p=.001$ )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성에서 교내활동 참여는 상관계수가 가장 높았다( $r=.593, p<.000$ )(Table 3).

Table 3. Correlation between character, relatedness and participation of nursing students.

	Character	Relatedness	Participation
Character	1		
Relatedness	.552 (.000)	1	
Participation	.593 (.000)	.288 (.001)	1

### 3.4 간호대학생의 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호대학생의 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학년, 학과 만족도, 관계성, 교내활동 참여를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잔차 분석결과 Durbin-Watson 통계량 1.794으로 2에 가깝고 0또는 4와 가깝지 않으므로 잔차의 독립성을 만족하였고, 독립변인 간의 다중공선성을 검정한 결과 공차한계(tolerance)는 1.0 이하의 값이었고,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VIF)은 기준치 10이하로 나타나 독립변수들 간에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간호대학생의 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관계성( $\beta = .415, p < .000$ ), 교내참여( $\beta = .247, p = .001$ ), 학년( $\beta = -.158, p = .032$ ), 학과 만족도( $\beta = .111, p = .152$ )로 나타났다으며, 인성에 대한 설명력은 63.6%였다(Table 4).

Table 4. Factors affecting character

Spec.	B	SE	$\beta$	t	p
Constant	114.479	.346		7.268	.000
Relatedness	3.413	.641	.415	5.323	.000
Participation	4.624	1.366	.247	3.384	.001
Degree	-3.329	1.533	-.158	-2.171	.032
Major Satisfactor	3.377	2.343	.111	1.441	.152
Durbin-Watson	1.794				
F(p)	20.502(<.001)				
R <sup>2</sup>	.404				
Adjusted R <sup>2</sup>	.636				

#### 4. 논의

대학 시기는 경쟁적 학업 분위기보다는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고, 동아리나 다양한 활동을 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인성 발달을 기대할 수 있는 시기다[19]. 인성은 사회발전의 기초가 되는 개인이 갖추어야 할 필수 요소이며, 특히 간호사에게 있어서는 간호전문직관 확립과 윤리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3]. 이에 보건의료현장에서 윤리적인 의사결정과 환자의 아픔에 공감하는 인성을 함양한 간호사를 배출을 돕고자 간호대학생의 인성, 관계성 및 교내활동의 관계를 분석하여 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 대상자들의 인성은 5점 만점에 평균 3.95점으로 중간 수준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Lim의 연구[20]에서 3.93점으로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거나, Nam[21]의 연구에서 3.84점으로 본 연구가 높은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의 결과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대학생의 인성은 학년, 학과 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학년에서는 3,4학년보다는 1,2학년이 인성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는데 이는 선행연구[22] 결과와 일치했다. Yeom[22]의 연구 보고서 인성과 학업 스트레스는 부적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하였고, 임상실습과 이론수업을 병행하는 3,4학년의 경우 학업 스트레스가 1,2학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인성 점

수가 낮게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학과 만족도의 경우 만족도가 높을수록 인성이 높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Nam[21]의 연구에서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대상자가 인성이 높았던 결과와 유사하다. 이는 수업에 참여도나 학과 만족도가 높을수록 인성 함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인성 함양을 위해 대학 차원에서 학과 만족도와 수업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교수법 개발 및 적용과 학업 스트레스를 감소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 대상자들의 관계성은 5점 만점에 평균 4.46점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도구는 달랐으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Ji의 연구[23]에서 3.74점, Byun[24]의 연구에서 3.64점으로 본 연구가 높은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간호대학생이 학내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한 의사소통 및 리더십 역량 함양과 조별실습을 통한 시뮬레이션 수업 등의 교육과정이 긍정적인 영향을 보였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대학생의 관계성은 성별, 학점, 학과 만족도, 지원동기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기존의 선행연구[23,25]에서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관계성이 높다는 연구 보고에 반해 본 연구에서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관계성이 더 높은 결과를 보여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Shin[26]의 연구에서 소셜미디어(Social Network Service, SNS) 사용시간이 대인관계와 정적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보고하였는데, 동일연구에서 여학생의 SNS 사용시간이 길게 나타났으며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대학생의 SNS 사용이 급증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학과 만족도도 관계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Lee[25]의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학에 만족하는 경우 관계성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지원 동기에서 취업이나 타인의 권유보다 적성을 고려하는 경우 관계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 학과에 견주었을 때 간호대학생의 경우 대상자 및 보호자, 여러 보건의료팀과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 간호사라는 명확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관계성이 높은 입시생들이 적성을 고려하여 학과에 입학하는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본다. 이에 본 연구자는 지원동기가 취업이나 타인의 권유에 의해 학과에 입학한 간호대학생을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관계성 향상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 대상자들의 교내활동 참여는 5점 만점에 평균 3.65점으로 중간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이는 선행

연구인 Lee의 연구[27]에서 3.20점으로 본 연구가 더 높은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대학생의 교내활동 참여는 학점, 학과 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학업성적에서는 성적이 높을수록 교내활동 참여가 높았으며, 학과 만족도는 만족도가 높을수록 교내활동 참여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Lee[28]의 연구에서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대학생생활에 잘 적응하는 연구 보고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 대상자의 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해 본 결과 관계성, 교내활동 참여, 학년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63.6%였다. 이중 관계성이 인성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인성과 관계성을 연구한 결과는 찾을 수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Sim[29]과 Song 등[30]의 연구결과에서 대인관계가 인성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하여 본 연구와 맥락을 같이하였다. Lee[27]의 연구에서 수업 중 발표, 팀 프로젝트 등을 통해 학우 및 교수와 상호작용하며 교내활동 참여가 높을수록 인성이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 하였는데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관계성 증진을 위해 대학생생활 전반에 걸쳐 교과와 교과외 활동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기획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년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참여에 부담을 줄여주고, 관계에 어려움을 나타내는 학생들에게는 학과 자체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멘티-멘토 프로그램이나 전문적인 상담을 위해 학생생활 상담센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보면 간호대학생을 인성을 겸비한 의료인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의사소통 역량을 포함한 관계성을 함양시키고 다양한 교내활동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여 교수 및 학우와 상호작용을 위한 대학 차원의 적극적인 활동 프로그램이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 또한 간호학을 지원하는 학생 중 적성을 고려하여 지원한 학생을 이 아닌 취업이나 추천에 의해 지원한 학생을 파악하여 교수자 면담 및 다양한 정보제공을 통해 적극적으로 관계성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본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결과에서 간호대학생의 인성, 관계성과 교내활동 참여는 중간 이상인 것으로 생각되며 변수들 간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관계성( $\beta=.415$ ,  $p=.000$ ), 교내활동

참여( $\beta=.247$ ,  $p=.001$ ), 학년( $\beta=-.158$ ,  $p=.032$ )으로 나타났으며, 인성에 대한 설명력은 63.6%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인성 역량을 함양한 간호대학생 배출을 위해 관계성과 교내활동 참여 간의 관계를 확인하였다는 것이며, 간호대학생 개인의 일반적 특성을 고려하여 인성 함양을 위한 전략 모색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는 G도와 K도에 위치한 2개 4년제 대학교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하였기 때문에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이 있다. 또한 코로나 19로 비대면 수업 및 학과행사 경험이 부족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추가연구와 추후 연구 대상자를 확대 적용하여 인성 역량을 함양한 간호대학생 배출을 위한 후속 연구를 제언한다.

## References

- [1] E. J. Choi, "Impact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Necessity of the Character Cultivating Education," *The Journal of Saramdaum Education*, vol. 13, no. 3, pp. 269-288. 2019. DOI: <https://doi.org/10.18015/edumca.13.3.201912.269>
- [2] J. H. Park, "Need of character education in nursing education,"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 15, no. 6, pp. 3321-3332, 2013.
- [3] M. H. Kwon, J. W. An, "Subjectivity Perceptions on the Nurse's Admirable Character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SSSS*, Vol. 43, pp. 121-140, 2018.
- [4]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Accreditation of Nursing Education Workbook," 3th ed. Seoul: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2017.
- [5] H. S. Ham, Repeated harassment and A new nurse who gets upset [Internet]. Daejeon:Geumgang Ilbo:2021 [cited 2021 February 02]. Available from: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883298> (accessed Nov. 02, 2021)
- [6] E. Y. Yeom, K. W. Seo, "Influences of interpersonal problems and character of nurses on quality of nursing servic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24, no. 5, pp. 445-454. 2018. DOI: <https://doi.org/10.1111/jkana.2018.24.5.445>
- [7] M. R. Lee, M. H. Nam, "Personality and the influencing factors in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 7, no. 6, pp. 427-437. 2017. DOI: <https://doi.org/10.35873/ajmahs.2017.7.6.039>

- [8] R. M. Ryan, & E. L. Deci.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the facilitation of intrinsic motivation, social development, and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vol. 55, no. 1, pp. 68-78. 2000.
- [9] M. K. Choi, J. N. Kim, "Moderating Effect of Adolescent Resili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Narcissistic Tendency and Interpersonal Problems,"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Health*, vol. 15, no. 4, pp. 747-763. 2010.  
DOI: <https://doi.org/10.17315/kjhp.2010.15.4.011>
- [10] Y. L. Kwag, "The Effects of Interpersonal relation disposition and Emotional intelligence on Interpersonal relation competence of Allied Health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vol. 26, no. 8, pp. 149-156. 2021.  
DOI: <https://doi.org/10.9708/iksci.2021.26.08.149>
- [11] H. J. Kim, S. N. Oh, M. S. Cho, "The Effects of Self-efficacy, Depression, and Anger on First Year Students Regarding Their Learning Persistence in Online Classes under Covid-19,"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vol. 14, no. 6, pp. 299-308. 2020.  
DOI: <https://doi.org/10.46392/kige.2020.14.6.299>
- [12] Y. M. Kim, "Correlation between Psychosocial Well-being, Resilience, and Self-directed Learning of Freshman Nursing Students in Non-face-to-face Lecture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Culture and Convergence*, Vol. 42, No. 12, pp. 295-318. 2020.  
DOI: <https://doi.org/10.33645/cnc.2020.12.42.12.295>
- [13] S. M. Kown. Positive psychology, Seoul: Hakjisa, 2018.
- [14] H. S. Lee, *Relationships between the Degrees of Class Activities, Out of Class Activities, Leisure Activities and the Character Development Level of University Student*,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Seoul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2018.
- [15] H. S. Nam,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Undergraduate's Perceptions of College Education, Student Engagement, and Learning Outcomes*, Hannam Universi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ungnam, Korea, 2017.
- [16] S. M. Park, S. H Hur, "A study for development of the integrated humanity scale for adolescent," *The Journal of Child Education*, vol. 21, no. 3 pp. 35-47. 2012.
- [17] E. L. Deci, R. M. Ryan, *The initiation and regulation of intrinsically motivated learning and achievement, In Achievement and motivat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9-36, 1992
- [18] M, H, Lee. *A Study in the Development and the Construct Validity of A Basic Psychological Need Scale base on Self-determination Theory(SDT) for Korean*,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2008.
- [19] K. W. Son, S. H. Um, "Developmental Characteristics and Influencing Factors of Character Index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Ethics Education Studies*, no. 52, pp. 199-252, 2019.  
DOI: <https://doi.org/10.18850/JEES.2019.52.08>
- [20] J. H. Lim, M. H. Choi, " The Influences of Self-leadership and Communication Skills on Character among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 23, no. 3, pp. 1383-1398. 2021.  
DOI: <https://doi.org/10.37727/jkdas.2021.23.3.1383>
- [21] S. M. Nam, J. S. Park, E. J. Shin, "Factors Influencing Character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vol. 20, no. 8, pp. 56-65. 2019.  
DOI: <https://doi.org/10.5762/KAIS.2019.20.8.56>
- [22] Y. E. Yeom, "The Influence of Personality, Interpersonal Problems, and academic Stress on Problem-Solving Ability among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 9, no. 1, pp. 209-220. 2019.  
DOI: <http://dx.doi.org/10.35873/ajmahs.2019.9.1.022>
- [23] E. S. Ji, M. S. Son, K. K. Shim, "Association between a Motivation to Volunteer, Personali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in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vol. 26, no. 1, pp. 100-107. 2020.  
DOI: <https://doi.org/10.14370/jewnr.2020.26.1.100>
- [24] H. S. Byum, K, H, Kim, D, H, Lee, "The Relationships among Anger Expressi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Depress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21, no. 4, pp. 91-99. 2020.  
DOI: <https://doi.org/10.5762/KAIS.2020.21.4.91>
- [25] E. J. Lee, S. J. Lee, "Associations of Interpersonal Relations with Irrational Beliefs and Social Supports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vol. 27, no. 4, pp. 313-320. 2018.  
DOI: <https://doi.org/10.12934/jkpmhn.2018.27.4.313>
- [26] M. J. Shin, H. H. Pyeon, H. J. Kim, J. H. Mo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body image, academic achievement according to SNS use time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vol. 5, no. 1, pp. 257-264, 2019.  
DOI: <http://dx.doi.org/10.17703/JCCT.2019.5.1.257>
- [27] H. S. Lee, "Relationships between the Degrees of Class Activities, Out-of-Class Activities, Leisure Activities and the Character Development Level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19, no. 2, pp. 53-75, 2019.  
DOI: <http://dx.doi.org/10.22251/ilcci.2019.19.12.53>
- [28] M. R. Lee, M. J. Kim, "The Influences of College Adaptation, Satisfaction of Major and Clinical Practice on Vocational Identi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9, no. 6, pp. 197-208, 2018.

DOI: <https://doi.org/10.5762/KAIS.2018.19.6.197>

- [29] S. S. Sim, M. R. Ba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aracter, interpersonal relations, and adjustment to a college lif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Vol. 17, No. 12 pp. 634-642, 2016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6.17.12.634>
- [30] H. S. Song, E. S. Na, Y. H. Jeon, & K. I. Jung, "Factors influencing college life adapta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Living Environmental System*, vol. 23, no. 1, pp. 72-81, 2016.

---

이 재 검(Jae-Kyeum Lee)

[정회원]



- 2018년 2월 : 을지대학교 임상간호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2022년 2월 : 건양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 박사수료)
- 2020년 9월 ~ 2021년 2월 : 건양대학교 간호대학 겸임교수
- 2021년 3월 ~ 현재 : 김천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성인간호학, 스트레스, 음악 중재

---

김 중 경(Jung-Kyung Kim)

[정회원]



- 2012년 2월 : 건양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보건학과 (보건학석사)
- 2017년 8월 : 건양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5년 3월 ~ 2017년 2월 : 문경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2017년 3월 ~ 현재 : 김천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간호관리학, 성인간호학, 시뮬레이션 교육, 삶의 질